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5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 즐겁게 안식할 날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생명의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피어나는 모든 생명은 자기만의 모습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 있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습관처럼 대하고 있다면 다시금 생동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접촉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따스한 4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설레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아픔의 소식과 기억 때문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주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아픔이 있는 곳을 향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 53:4,5 인도자
 ▲ 교 독 문 128. 사순절(5)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재훈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 함께
 ▲ 성경봉독 사 43:16-21
 I. 인도자
 II. 허신열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 I. 십자가 I. 마중물 찬양대
 II. 하나님의 은혜 II. 청파찬양대

말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범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이범석 목사
공동체 소식	이범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날마다 우리 앞에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나간 옛 일을 떠올리기보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출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지나간 일들에 얽매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주님의 섭리를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이범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집회 / 설교 : 이범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전도에 대하여

‘문밖에서 두드린다’는 그림은 전도를 상상할 수 있는 주요한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리 많이 참고되거나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 그것이 그리스도의 요청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는데, 우리가 남의 마음 문을 함부로 열어젖힐 수는 없지요.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음성을 듣는 경험’입니다. ‘영접한다’고 표현하는 행위에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의 삶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의 범위는 문을 두드리기까지입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과 더불어 거하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에게 마음을 내어주겠다는 결심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될 수도 없고, 회유로도 안 될 일이고, 그것을 예수 대신 사람이 맘대로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 상기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왜 변질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나뱃티스트 신학자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대장간2012) 이란 책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누군가가 세례 받으려면 평균 3-4년은 걸렸다고 합니다. 박해받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찾아온 사람들을 별로 반기지도 않았고, 혹시 제국의 첩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즉 찾아온 구도자들에게서 삶의 변화와 진정성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삶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만 교리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었으니 수년이 걸렸다는 거지요. 삶의 변화가 먼저고 교리 교육은 나중에였습니다. 세례는 그 모든 과정을 진실로 잘 통과했음을 인증하는 공동체의 허입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결국 국교로 승인되자 온갖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클라비우스 왕은 자신의 병사들과 집단 세례를 청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는 갑옷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세례 받았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그 사건을 놓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그에게서 갑옷을 벗어야 하는 결단이 되지 못하고, 그의 권력과 무력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 역시 기존의 권력과 질서와 위세를 그대로 승인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기대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은 아마 무력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세력을 얻고, 재산을 불리는 자본주의적 존재방식을 확신시키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깔려있어서는 곤란하겠지요. 성 프란체스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을 하라’고 했었다지요.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현존의 전도’ 즉,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됨으로써 더 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그 원칙은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 걸까요? …

제가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읽은 선교학 과목의 교재 제목이 「선교와 무의미성」이었습니다. 서구의 선교학계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 책의 결론은 선교가 무의미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선교가 가능하고,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선교를 위해 투입한 자원과 역량에 걸맞은 결과물이 없더라도 그것을 해야 할 소임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주장은 결과주의에 찌든 우리의 심성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는 궤변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런 통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단지 전략의 문제로 여겨지는 시대에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존재할지를 논하는 존재양식이라고 주장하는 것, 좀 낯설긴 하겠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탐색해야 하는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양희송, 「세속성자」(복인더깍)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임

- 김남조

임의 말씀 절반은
맑으신 웃음/
그 웃음의/ 절반은
하느님거 같으셨다/
임을 모르고
내가 살았더라면
아무 하늘도 안보였으리

그리움이란
내 한몸
물감이 짙히는 병/
그 한번 번갯불이
스쳐간 후로/
커다란 가슴에
나는/ 죽도록 머리 기대고 산다

임을 안 첫 계절은
노래에서 오고
그래 만날
시만 쓰더니/
그 다음 또 한철은
기도에서 오고
그래 만날
손 씻는 마음/
어제와 오늘은
말도 잠자고/
눈 가득히
귀 가득히
빛만 받고 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혜린	구명자	권미정	김금순	김나름	김명희 ^b	김미숙	김병대
김수진 ^b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린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김지현 ^b	김지훈	김진우	임미진
김창숙	김은종	김철수	유영남	김형근	김형욱	김홍수	전성호	남명진	김애정
남윤경	노신후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연주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 ^a	방민	방준	배강우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서수진	소광섭
김숙희	송정근	이소선	신동완	안길상	이형숙	안미숙	안성호	김희숙	안종일
정현주	안홍숙	홍순구	왕수명	우순덕	유중희	이건호 ^b	윤영주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범석	류정옥	이성범	권현숙	이재훈	이정은	이한나
이호원	임선자	임성택	홍순위	임형욱	장기환	장영숙	장의림	전성숙	전현선
정성훈	정택중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주은경	지윤미	최승주	조호진	최영민
이상미	최옥분	최종원	최형경	노진래	최형민	최희영	홍순복	홍윤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혜린	김나름	김수연	김영빈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재영	김정린	김태정
박기영	송인선	안민호	안현호	오은영	유수진	이재삼	전정현	이지하	임채진
이영희	임혜진	전정목	전맨디	조병무	송양진	무명			

생일감사헌금

손규현 최윤희

녹색꿈헌금

고희도 이미정 이승지 무명²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동호회 : 오늘 오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2. 입교신청 : 이번 부활절에 입교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교교육 대상자는 유아세례를 받은 만 18세 이상의 교인입니다. 교육은 13일(토)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3. 고난주간 기도회 :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고난주간 기도회가 저녁 7: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4. 세월호 5주기 : 세월호 5주기 기억예배가 오늘 오후 5시 안산 화랑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5. 부활절 유정란 판매 : 생협에서 부활절을 맞아 유정란을 판매합니다. 유정란 30알에 11,500원, 구운유정란 40알에 21,000원(택배)입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생협에 구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성경본문을 묵상하고 실천사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시 118:19-29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이범석	서수진	이범석

4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현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홍재 박상규	이동천 신정훈	박미연 김태정
	2부 현금위원	하현철 최현옥		

오늘 식당 봉사	김윤정 최은미 김명하 강향미 오송경 오형일 윤성종 김재영
다음주식당봉사	이현순 이증자 조미선 박명제 서미경 김숙희 소광섭 박기태
오늘설거지봉사	4남선교회(35-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2여선교회(61-65세)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